광산형 통합돌봄, 의료급여 지출 부담 낮췄다

영구임대아파트 전수조사 바탕 민관협업 복지체계 빛 발해

광주의료사협 '우리동네의원' 연계 방문재활 등 괄목 성과

광주 광산구가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주도 통합 돌봄' 시대를 앞당기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7일 광산구에 따르면 의료급여제도는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과 수급자격 완화 등으로 대상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479만 원(2019년 통계청 2021 고령자 통계 기준)으로 매년 늘고 있고, 전체 인구와 비교할 때 2.9배 많은 수준이다. 이런 흐름은 의료지출 지급현황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광산구 1년 의료급여 지급액 규모는 750억 원 안팎으로 매년 10%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 2021년 광산구 전체 의료급여 지급현황을 보면 777억 원으로 전년 716억 원보다 8.5%나 증가했다.

이로 인한 복지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데, 문제는 과잉진료, 중복처방 등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매년 의료급여 지출액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 등이 나온다.

특히 이와 관련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영세민들의 상황이 심각했는데, 광산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인 늘행복 프로젝트 추진 이후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영구임대아파트 통합돌봄 대상자의 2021년 의료급여 지급액만 봐도 10억 9200만원으로, 2020년 10억 6600만원보다 26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2.5%로, 광산구 전체 증가율보다도 무려 6%나 낮았다.

광산구가 2019년 전국 최초 영구임대아파트 생활 실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돌봄, 일자리, 주거, 의료, 공동체 등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한 민·관 협업 복지체계가 빛을 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광주의료사회적협동조합(광주의료사협)의 '우리동네의원'과 연계한 방문 진료가 큰 역할을 했다. 전국 최초로 민·관이 힘을 모아 설립한 광주의료사협이 운영하는 '우리동네의원'은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주민과 장애인 가정을 직접 찾아 다니며 건강을 돌보고 있다. 지난해에만 148명이 해당 서비스를 받았다.

우리동네의원' 임형석 원장이 광산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을 찾아가 진료하고 있다.

여기에 만성질환자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방문재활과 늘행복 건강밥상 사회적협동조합의 건강 반찬 지원 등 폭 넓은 서비스가 뒷받침되면서 삶 전체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광산구가 방문간호, 방문의료, 방문재활, 일상생활 서비스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만족도가 93%에 달했다.

서비스가 건강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88%로 매우 높았다. 의료지출 증가로 인한 부담은 덜고,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광산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에 대응해 광산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예방에 방점을 두고 광주의료사협과 함께 추진한 광산구만의 통합돌봄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냈다"며 "올해 권역별 서비스 확장 등 광산형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알약은 봉투 분리 배출 가루약은 약포지 그대로

광산구 폐의약품 분리배출 홍보

광주 광산구가 폐·불용의약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령자 만성질환 발병률 증가 등으로 상비의약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복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약품 처리가 환경 오염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산구는 폐의약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으로 ▲알약은 약 봉투를 분리할 것 ▲캡슐은 까서 버리고 안에 든 가루만 모을 것 ▲가루약은 약포지 그대로 버릴 것 ▲물약, 시럽은 한 병에 모아 새지 않도록 밀봉해 배출할 것 ▲안약, 바르는 물약 등 특수용기에 담긴 약은 2차 포장재만 분리할 것 등 자세한 분리배출 방법을 담은 리플렛을 주요 거점에 배부하고, 온라인 홍보물도 제작해 광산구 사회적관계망서비스네트워크 등에 게재하고 있다.

광산구는 또 시민의 배출 편의를 위해 공동주택과 일부 약국에 설치했던 폐의약품 수거함을 관내 모든 약국과 경로당 225곳에 추가 설치했다.

광산구는 총 456개 폐의약품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수거함에 모인 폐의약품은 관리자가 수거 접수하면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무심코 버린 폐의약품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올바른 배출방법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초본 발급 무료화 건당 200원 수수료 없애

광주 광산구는 "광주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2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광산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 맞춘 비대면 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추진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총 113종이다. 특히 주민등록 등·초본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류로, 그동안 건당 200원의 발급수수료가 부과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이 쉽고 편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구청과 21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 42곳에 총 43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 없이 본인 지문확인을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광산구청, 광주송정역사 등 7곳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운영 재개 경로당 378곳 청소·방역 지원

콩나물 키우기 꾸러미 전달도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됐던 경로당의 운영 재개를 맞아 어르신 일상 회복 지원에 나섰다.

광산구는 지역 내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사협)과 함께 경로당 운영 정상화를 대비해 지난 18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관내 37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청소 방역 등을 실시했다.

첨단1동 지사협(위원장 김용수)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관내 2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전문 방역업체와 함께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의 불안감 해소와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경로당 구석구석을 방역하고 대청소도 실시했다.

월곡1동은 사단법인 광주디아코니아(대표 조광수)의 도움으로 경로당 5곳을 대상으로 방역과 환경정비를 진행하기도 했다.

어르신들의 활력 찾기를 지원한 곳도 있다. 하남동 지사협(위원장 김명옥)은 지난 21일 하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콩나물 키우기 꾸러미 전달식을 가졌다. 콩나물 키우기 꾸러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이웃 간 왕래가 줄어든 어르신들의 우울감과 무기력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전달식을 통해 하남동 경로당 16곳에 콩나물 키우기 꾸러미 32개와 콩나물 콩 32㎏이 배부됐다. 광산구는 경로당 운영 재개에 맞춰 냉난방비 시설 확충 및 식사 등 지원책을 신속히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산구 첨단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들이 최근 관내 경로당을 찾아 방역과 대청소를 하고 있다.

광산 삼도파출소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눈길

금융기관·주민 상대 대대적 홍보

광산경찰서 삼도파출소가 전화 금융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주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삼도파출소는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을 방문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순찰 업무 등을 하면서도 주민 접촉시 최근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수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전화로 개인정보 등을 요청할 경우 알려주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또 관내 우체국과 농협 등 금융기관에 관련 홍보물을 부착하고, 관내 마을별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활동도 적극적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승자 파출소장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관내에서 만큼은 단 한 분도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수상인명구조 자격검정 교육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일반시민 대상 수상인명구조 자격검정 교육을 실시했다.

공단은 지난 23~24일 이틀간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이용시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수상인명구조 자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에는 센터 이용 회원 및 인명구조에 관심 있는 시민 등 총 30명이 참여했다.

이날 자격검정 교육은 위기대응 절차,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수상 응급 구조장비 사용법 교육으로 이뤄졌으며, 평가는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진행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용 시민들에게 수상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수상 안전 상황 대처능력의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